

## 29장(2) 제사장과 제단의 성결, 여호와와의 임재하심

위임식에서 제사장에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제사장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시는 하나님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제사장의 위임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사이에 거하시는 것에서 의미를 충만하게 드러낸다.

### 1. 화목제 식사 (28:31-34)

숫양의 기름 부분을 태워서 드린 후에는 기름과 오른편 넓적다리를 요제로 삼고 번제도 살라서 드렸다 (29:22-25). 숫양의 가슴 부분과 (왼편) 넓적다리는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이 거제물로 받았다 (29:26-28).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의 성격을 지녔고, 함께 기뻐하는 큰 잔치였다.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고 제사장들은 성전 뜰에서 고기와 무교병 떡을 먹었고, 남은 것은 불살라야 하였다.

### 2. 제사장과 제단을 성결케 함 (29:35-37)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할 때에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였고(참조. 29:14), 또한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였다. 제사장과 단을 정결케 하는 일이 칠 일 동안 동시에 진행되었다. 제사장과 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속죄제에 의하여 정결하게 되었다.

7일 동안 단을 속죄하면 그 단은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될 것이다.

### 3.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만나심 (29:38-42)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 기간에도 매일 상번제를 드렸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일년 된 어린양 한 마리씩을 소제물과 포도주, 기름을 드렸다. 밀가루 예바 십분의 일은 약 2.2리터이고, 기름과 포도주 한의 사분의 일은 약 0.9리터였다. 소제로 밀가루 2.2리터와 기름 0.9리터를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0.9리터를 어린양 번제와 함께 드려서 여호와께 음식 제사가 되게 하였다.

회막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매일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었다.

### 4. 여호와와의 임재하심으로 출애굽의 구원의 뜻을 성취 (29:43-46)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단을 정결케 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와 자기 백성의 교제가 실현되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주제는 여호와이다. 이 점을 강조하려고 43-45절에서는 “내가 ... 하리라” 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인칭이 일곱 번 사용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아 주심으로써 그 회막과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출애굽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 목적은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묵상과 실천:

#### 화목제로 끝나는 임직식,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임직은 화목제의 잔치로 이어진다. 임직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식사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였다. 다른 사람을 이 식사로 초대하는 것이 거룩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임직된 사람의 의무였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화목제로 표시되는 즐거움으로 끝난다.

칠일 동안 거행되는 임직식의 중요한 점은 제사장뿐 아니라 제단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단도 함께 속죄제의 수송아지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속죄제로 그 허물이 가려지고 정결케 될 때에 그 제단을 제사장과 함께 거룩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갈 것이었다.

제사장과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2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 회막과 단과 아론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예식을 행함으로써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식을 사용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고 명백하게 선언해 주셨다.

그리고 제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고 하시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독자들에게 생각하게 한다. 제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인데(3:5),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하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대업을 이루셨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이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셨고, 성신 하나님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시면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신다.

## 29장 (2) 익힘 문제

1. 위임식 기간에 매일 속죄제를 드리면서 또한 무엇을 거룩하게 하였습니까? (35-37절)
2. 이스라엘에서 매일 드릴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 1) 언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39절)
  - 2) 무엇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38절)
  - 3) 어디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42절)
3.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46절)